

KDB리포트

KDB Report

이슈브리프

트럼프 2기의 주요 경제분야 기관장 분석

ASIC 반도체 기술 동향 및 전망

국제금융시장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트럼프 2기의 주요 경제분야 기관장 분석	1
ASIC 반도체 기술 동향 및 전망	4

국제금융시장	7
--------------	---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10
--------------------	----

트럼프 2기의 주요 경제분야 기관장 분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정희채 (jhc0515@kdb.co.kr)

- ◆ 트럼프 2기의 신규내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, 미국의 대내외 경제 정책수립 및 실행을 책임지는 재무부 및 대통령실 직속기관의 중요성이 부각
- ◆ 트럼프 2기 신임 경제분야 기관장들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만큼, 경제분야 기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 있음

□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신규내각* 구성 및 경제분야 기관장들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 있음

* 우리나라의 대통령·국무총리 및 국무위원(장관) 등 15~30인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와 유사

- 美 행정부 소속 재무부(Treasury), 대통령실(EOP)* 산하 관리예산국(OMB), 경제자문위원회(CEA) 및 국가경제회의(NEC)**는 경제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

*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(EOP):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. 루스벨트가 창설, 초당적(non-partisan) 전문·고위급 공직자들로 구성되며 정책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내각을 보좌

** Office of Management & Budget /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/ Natl' Economic Council

- 美 내각(Cabinet)*은 부통령 및 15곳의 행정부 장관 외에도 대통령의 정책목표에 따라 다양한 기관장들을 포함하여 운영되며, 대부분 대통령 지명 및 상원 인준후 임명

* '25.2.27 기준 내각지명자 22명 중 교육부, 노동부장관 및 UN대사 제외 19명은 상원 인준료

【 美 주요 경제분야 기관의 역할 및 특징 】

구분	상세 내용
행정부 소속	Treasury  [설립] 美 독립전쟁 및 헌법제정 후 정부의 자금조달 및 관리 목적으로 1789년 설립 [조직]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Dept. Office와 경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Operating Bureau로 구성 (Operating Bureau가 전체 직원의 98% 차지) [역할] 대내외 경제정책 수립, 회계, 세수, 화폐 및 국채 발행
대통령실 (EOP) 소속	OMB  [설립] 1921년 재무부 내 Bureau of Budget로 출범, 1939년 대통령실 소속 이관, 1970년 現 OMB로 변경 [조직] 대통령실 직속기관 중 최대조직(소속직원 약 500명) [역할] 대통령 공약 및 정책 실행에 필요한 예산안 수립 및 관리, 연방기관 성과측정
	CEA  [설립] 1946년 Employment Act 법안으로 설립 [조직] 20명 내외 다양한 학파의 경제학자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 [역할] 객관적, 독립적 경제조언, 연간 경제보고서(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) 작성
	NEC  [설립] 1993년 설립, 대통령실(EOP) 내 정책개발실(Policy Development Office) 소속 [조직] 대통령(위원장), 부통령, CEA 의장, 주요 장관 및 국장(Director) 등으로 구성 [역할] 대내외 경제정책 결정, 정책이행 모니터링 등 조정자(Coordinator) 역할

□ 트럼프 1기에 이어 경제자문위원회(CEA) 의장은 2기 내각멤버에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, 경제분야 기관장들은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될

○ 1946년 설립되어 약 80년간 대통령앞 객관적인 경제분석 및 균형있는 시각으로 경제조언을 제공했던 CEA 의장이 트럼프 2기 내각에서 다시 제외될 전망

- 역대 연준 의장들 中 일부*는 과거 CEA 의장 출신일 정도로 독립성·객관성을 인정받는 점을 고려하면 CEA의 금번 내각멤버 再퇴출은 상징적 의미가 큼

* 아서 번즈(1970~1978), 앨런 그린스펀(1987~2006), 자넷 옐런(2014~2018), 벤 버냉키(2006~2014)

- 트럼프 1기에도 CEA 의장이 내각멤버에서 제외되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경제회의(NEC)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었던 전례*가 있음

* 당시 前 골드만삭스 출신 NEC 국장(Gary Cohn)이 경제자문 역할까지 수행하며 영향력 확대

【美 과거 행정부 장관 외 내각멤버(Cabinet-Level officials) 및 트럼프 2기 예상변화】

역 할 (분야)	오바마 (44代)	트럼프1기 (45代)	바이든 (46代)	트럼프2기 (47代)
Ambassador for UN (국제관계, 외교)	○	×	○	○
Director of OMB (예산관리·성과평가)	○	○	○	○
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(안보, 對테러)	×	○	○	○
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Agency (정보, 보안)	×	○	×	○
Chair of CEA (경제자문)	○	×	○	×
Director of the Office of Science & Tech (과학기술)	×	×	○	×

주 : 이외 수석보좌관, 무역대표, 환경보호청 및 소상공인 지원청 행정관 등도 내각멤버에 포함

자료 : https://www.senate.gov/legislative/nominations/Trump_47_cabinet.htm 등 참조

○ 금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경제분야 신임 기관장*들은 사업가, 금융권 및 트럼프 1기 시절 경력 등 트럼프 경제정책의 강성 지지층 인사들로 구성

* 재무부 장관, OMB 국장은 상원 인준료, CEA 의장은 인준 진행중 (NEC 국장은 인준 불요)

- 재무부 장관(Scott Bessent) : 헤지펀드社 CEO 등 글로벌 투자운용 경력, 상원 청문회('25.1.16)에서 감세연장과 관세 활용방안을 언급하며 트럼프 정책 대변

- OMB 국장(Russell Vought) : 트럼프 1기 시절 OMB 국장직을 역임하였으며, 공화당의 하원 정책국장 및 공공정책 단체 근무 등 경력

- CEA 의장(Stephen Miran) : 헤지펀드 수석 전략가, 경제연구소 연구원 및 트럼프 1기 재무부 수석 자문위원으로 의장 지명전부터 트럼프 관세정책을 옹호*하였으며, 親-트럼프 성향 감안시 내각멤버에서 제외되더라도 주요회의에 참석할 가능성 높음

* 현재 평균 2%의 관세율에서 20~50%으로 인상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(WSJ, '25.1.12)

- NEC 국장(Kevin Hassett): 트럼프 1기 시절 CEA 의장을 역임하며 인프라 공약*, 다국적기업 이익 자국송환** 등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지

* 인프라 공약: 고속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건설 및 교외지역의 인프라 확충, 에너지망, 물공급 개선 등을 위한 \$1.5조 규모의 투자계획으로, 재정조달 문제 및 민간참여 부족 등으로 공약이행 실패

** 이익 자국송환(Profit Repatriation):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미국으로 송환하여 투자와 고용촉진을 도모 하였으나, 상당부분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이어져 고용창출과 신규투자 활성화는 저조했다는 비판

【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경제분야 기관장 】

Treasury	OMB	CEA	NEC
Scott Bessent(스콧 베센트) (‘25.1.27자 상원인준)	Russell Vought(러셀 보이트) (‘25.2.6자 상원인준)	Stephen Miran(스테판 미란) (現 상원인준 진행중)	Kevin Hassett(케빈 하셋) (상원인준 불요)
			
[학력] 예일대 정치학 학사 [경력] - Key Square Capital Mgmt 설립, CEO 겸 CIO - 소로스 펀드 CIO - 통화·금리 전문분야 - 예일대 겸임교수	[학력] 조지 워싱턴대 법학 박사 [경력] - 트럼프 1기 OMB 국장 - 워싱턴 DC 공공정책 단체 - 美 보수단체 Heritage Action for America 부회장 - 하원 공화당 정책국장	[학력] 하버드 경제학 박사 [경력] - Hudson Bay Capital Mgmt 수석 전략가 - Manhattan Institute 연구원 - 트럼프 1기 재무부 수석 자문위원	[학력]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[경력] - 트럼프 1기 CEA 의장 (2017~2019) - 美 보수 싱크탱크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연구원

□ 親-트럼프 성향의 경제분야 기관장들과 現 「Republican Trifecta*」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이 트럼프 1기 대비 빠르고 강하게 작용할 전망

* Trifecta: 특정 정당이 대통령직 및 상·하원을 독식하는 현상

- 금번 경제분야 신임 기관장들은 무역, 관세 및 세금과 관련된 트럼프의 주요 경제 정책을 적극 지지하여 향후 대외 경제정책 수립·이행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
- 또한, 내각회의시 경제 관련하여 균형있는 시각을 제공했던 CEA 의장이 트럼프 1기에 이어 내각에서 다시 제외됨에 따라, 대통령실 소속 국가경제회의(NEC)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*

* NEC는 국장 주관하에 대통령 및 내각 주요장관들이 참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조정이 가능하며, 금번 NEC 국장 Kevin Hassett은 트럼프 1기 CEA 의장시절부터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던 인물

- ‘26.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공화당이 상·하원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제정책 추진 및 관련 입법활동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
- 다만,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재정적자 축소, 낮은 물가를 지향하여 트럼프의 주요공약(이민축소, 관세부과, 대규모 감세)에 대하여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제기되므로
- 금번 트럼프 2기 경제분야 기관들의 정책과 어젠다 등을 면밀히 주시하되 의회의 공조여부 및 美 연준의 동향도 점검할 필요

ASIC 반도체 기술 동향 및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서지훈 (zihoon@kdb.co.kr)

- ◆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범용 프로세서인 CPU, GPU에 의존하기보다 “필요한 기능”만 담아낸 ASIC(주문형 반도체)이 탑재된 자체 가속기* 개발

* 가속기 : AI 및 머신러닝과 같은 복잡한 연산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설계된 반도체

- ◆ 자율주행, 클라우드,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연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맞춤형 반도체의 수요 증가와 빅테크 기업들의 ASIC 개발 추세로, ASIC 반도체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

□ ASIC(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)은 사용 환경에 최적화로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로, 효율성이 우수하나 범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

- ASIC은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회로가 간소화·최적화 되어, 적은 전력 소모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며 생산 단가*가 낮은 장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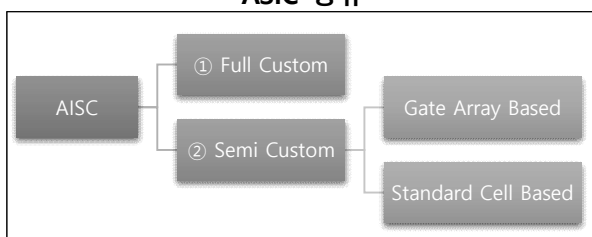
* ASIC은 초기 개발 비용이 범용 반도체 대비 높지만, 공정 수가 적다는 장점 등으로 대량 생산되면 총투자 비용 절감 가능

- Intel의 ASIC 기반 AI 칩 Gaudi3의 가격은 약 1만 5천달러로 NVIDIA GPU인 H100(약 3만달러)의 절반 수준의 가격
- 다만, 특정 기능에 최적화되어 다양한 작업이 어려워 범용성이 떨어지고 애플리케이션 변경이나 업그레이드 시 새로운 칩을 제작해야 하는 등 유연성이 부족

- ASIC은 설계 방식(맞춤화 및 설계 변경 가능 여부 등)에 따라 크게 ① Full Custom, ② Semi Custom으로 구분할 수 있음

- ① Full Custom : 사용 환경에 설계를 맞춰 제작하는 방식으로, 최적화된 성능과 낮은 소비전력이 장점이나 설계 및 제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
- ② Semi Custom : 설계자가 일정 수준 정형화된 Cell이나 Logic Gate를 활용하여 원하는 대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“Full Custom” 방식 대비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음

ASIC 종류



자료 : 산업은행

ASIC 종류별 상대적 특징 비교

	단가	개발 기간	NRE* 비용	Chip 크기	성능
Full Custom	높음	장기	큼	작음	좋음
Semi Custom	낮음	단기	작음	큼	나쁨

* NRE : 신제품 연구, 설계, 테스트를 위한 일회성 개발 비용
자료 : 산업은행

□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NVIDIA의 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ASIC이 탑재된 자체 가속기를 개발하는 추세임

- NVIDIA는 토탈 솔루션* 전략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80% 이상 차지하는 등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차지

* AI 연산에 최적화된 전체 컴퓨팅 아키텍처로 S/W 개발 툴, H/W, 통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 포함

- NVIDIA는 S/W 개발 플랫폼인 쿠다(CUDA)*를 무료로 공개하면서 자사 GPU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시장 입지를 강화

* NVIDIA에서 개발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으로, GPU를 활용하여 연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게 함

- NVIDIA의 GPU는 범용적으로 설계된 프로세서로, 그래픽 처리뿐만 아니라 머신러닝, 연산 등 다양한 작업에 사용되나, 가격과 소비전력이 높은 것이 단점

-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NVIDIA의 의존도를 낮추고 NVIDIA GPU의 높은 가격과 소비전력을 해결하고자 원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ASIC 기반의 자체 가속기 개발에 투자

- 구글, 애플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SIC 기반의 자체 칩을 설계 및 제작하며 NVIDIA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

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SIC 개발 및 출시 내용

기업	ASIC 제품	출시 연도	특징
구글	Trillium (TPU v6)	'24	· Gemini 2.0의 추론 및 훈련은 100% Trillium 기반 · Tensor Flow*에 최적화되어 성능을 극대화 * 구글의 딥러닝 프레임워크 · TPU v1 출시('15년) 후 지속 업데이트
애플	M4	'24	· CPU, GPU, Neural Engine* 등 통합 탑재한 Chip * Neural Engine : AI 워크로드를 가속하는 역할 · M1 출시('20년) 후 지속 업데이트
마이크로소프트 (MS)	Maia100	'23	· MS Azure*의 LLM 학습 및 추론 최적화가 목적 * MS에서 만든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· MS는 설계와 테스트 단계부터 OpenAI와 협력
아마존	Trainium3	'24	· LLM, 멀티모달 모델 등을 훈련하여 차세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구축 지원 · '19년 자체 추론 칩인 "Inferentia" 출시 및 트레이닝 칩 Trainium1 출시 이후 지속 업데이트
인텔	Gaudi3	'24	·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(LLM, Stable Diffusion 등) 부터 표준 객체 인식 등 모든 AI 워크로드에 대해 최첨단 데이터센터 성능 제공

자료 : 각 사 참고, 산업은행 재구성

- 다만, 아직 NVIDIA의 GPU에 의존하는 경향*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

* MS는 '24년 NVIDIA의 Hopper 칩(H100, H200 등 GPU)을 48만 5,000개 구입(Omdia, '24.12)

□ 자체적인 AI 가속기 설계 등으로 ASIC 시장은 향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, ASIC 설계 전문 기업의 성장이 기대됨

○ 미국 시장조사기관 Market Research Future는 ASIC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7.5% 성장하여 '24년 231억달러 규모에서 '34년 478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

○ Broadcom과 Marvell이 ASIC 설계 시장을 주도중이며, 향후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

- Broadcom은 30년 이상의 통신 및 센서 분야의 ASIC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구글,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AI용 ASIC 반도체를 공급*

* Broadcom의 '24년 ASIC 매출액은 122억달러로 전년 대비 221% 증가한 수준

- Storage 및 Networking 등 분야의 ASIC 반도체를 전문 설계하는 Marvell은 데이터센터, 5G 등 특정 시장에 집중하며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과 협업 중*

* Marvell의 '25.3Q(회계연도, '24.8~'24.10) 매출은 전년 대비 7% 증가에 불과하였으나, 데이터센터 부문의 연간성장률은 전년 대비 98%에 달함

국제금융시장 2월 동향 및 3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윤 영 교 (yoonyk@kdb.co.kr)
심 한 용 (hyshim@kdb.co.kr)

- ◆ (환율) 2월 원/달러 환율은 대내외 불확실성의 일부 완화와 엔화 강세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로 인하여 다소 하락, 3월은 무역적자 전환 등으로 1,40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 지속 전망
- ◆ (금리) 2월 미국과 유로존 금리는 하락한 반면 일본은 금리인상 지속 기대 등으로 상승, 3월 주요국 금리는 각국 통화정책회의 결과의 차별화 가능성에 따라 상이한 흐름을 예상
- ◆ (주가) 2월 미국과 일본 주가는 하락한 반면 유로존 주가는 상승, 3월 주요국 증시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장벽 확대 가능성과 연준 금리인하 지연 등 조정 요인 상존

□ 2월 주요 경제·금융 동향 : 미국은 고물가 우려로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 부각, 한은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, 중국은 LPR금리 동결

- 미국, 인플레이션 우려 속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 대두
 -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*이 시장 기대치(2.9%)를 상회하였고,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('25.1월 3.3% → 2월 4.3%)하며 트럼프發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
 - *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2.4('24.9월) → 2.6(10월) → 2.7(11월) → 2.9(12월) → 3.0('25.1월)
 - 파월 의장 등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위협으로 추가 금리인하 관련 신중론을 고수, 1월 FOMC 의사록에서도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언급
- 한국은행은 금통위(25일)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(3.00% → 2.75%)
 -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 가운데, 수출 증가세 악화*와 소비 부진 등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하여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
 - * 국내 수출증가율(% , yoy) : 8.0('24.1Q) → 10.1(2Q) → 10.5(3Q) → 4.2(4Q) → △10.2('25.1월)
 - 이창용 총재는 주요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*를 하향 하였다는 입장, 향후 성장률 반등을 위하여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함을 시사
 - * '25년 한은 경제성장률/물가상승률 전망치(%) : 1.9/1.9('24.11월) → 1.5/1.9('25.2월)
- 中 인민은행(20일), 대출우대금리(LPR) 동결(1년 3.10%, 5년 3.60%)
 - 제조업 PMI('24.12월 50.1 → '25.1월 49.1) 하락 등 경기 둔화 흐름에도, 2월 중 위안화 약세* 등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금리**를 4개월 연속 동결
 - * 위안/달러 환율(위안) : 7.30('25.1.1일) → 7.25(1.31일) → 7.31(2.12일) → 7.29(2.19일)
 - ** LPR금리 1년/5년(%) : 3.45/3.95('24.2월) → 3.35/3.85(7월) → 3.10/3.60(10월) → 3.10/3.60('25.2월)
 - 중국 당국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을 천명한 가운데, 3.4일 양회(兩會)를 전후하여 구체적인 부양책이 가시화될 전망

□ '25.3월 주요 국내외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, FOMC(18~19일) :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금융시장*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나, 서비스업 PMI('25.1월 52.8 → 2월 49.7) 하락, 소비심리 악화** 등 소비 둔화 우려로 점도표 변화 등 향후 정책경로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 주목받을 전망

*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95.0%('25.2.27일)

**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64.7로 '23.11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, CB 소비자신뢰 지수도 전망치(102.3)를 하회하는 98.3으로 '21.8월 이래 전월대비 최대 폭(↓7.0p) 하락

- 일본, BOJ 회의(17~18일) 및 유로존, ECB 회의(6일) : ECB 인사들은 무역마찰 확대 등으로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하여 유로존은 동결 전망, 우에다 BOJ 총재는 식품 중심의 물가* 상승세를 우려하며 일본은 연속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

* 日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2.5('24.9월) → 2.3(10월) → 2.9(11월) → 3.6(12월) → 4.0('25.1월)

□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

- (환율) 2월 원/달러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엔화 강세에 원화가 동조화되며 하락, 3월은 무역적자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1,40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 전망

- 2월 원/달러 환율은 러·우 종전협정 개시와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·멕시코 관세 부과 유예 등에 따른 강달러 완화와 엔화* 강세에 대한 원화의 동조화로 하락

* 엔/달러 환율(엔) : 157.1('25.1.1일) → 155.1(1.31일) → 152.7(2.14일) → 149.1(2.24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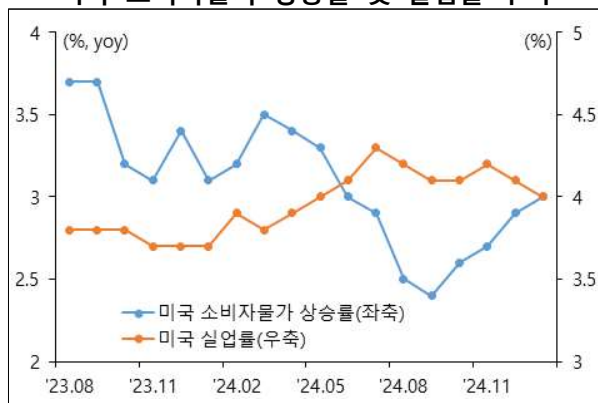
- 3월 원/달러 환율은 무역수지* 적자 전환과 국내 정치적 불안정 지속, 트럼프發 관세정책 확대 우려 등으로 1,40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 전망

* 국내 무역수지(억달러) : 64.3('24.9월) → 31.7(10월) → 55.8(11월) → 64.9(12월) → △18.9('25.1월)

달러 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추이



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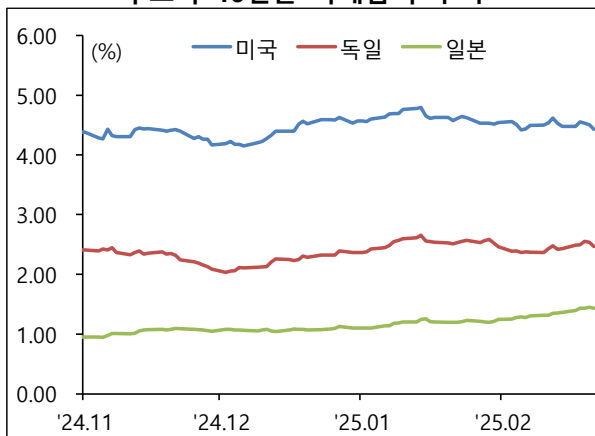


	'23년말	'24년말	'25.1월말	'25.2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 환율	1,294.5	1,472.5	1,431.3	1,427.1	△0.3%
달러 인덱스	101.47	108.09	107.46	106.63	△0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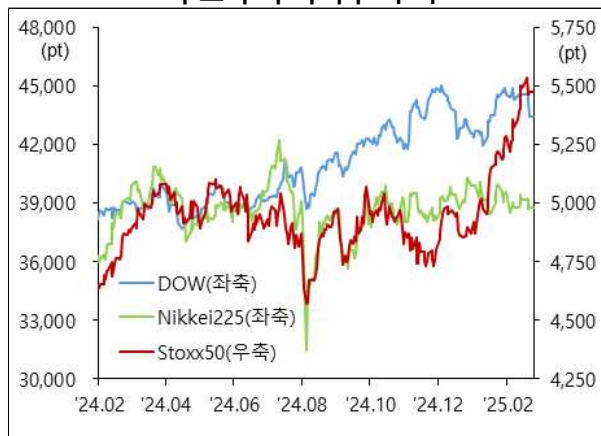
자료 : 연합인포맥스, Bloomberg

- (금리) 2월 미국과 유로존 금리는 하락한 반면 일본은 상승, 3월 주요국 금리는 각국 통화정책회의 결과의 차별화 가능성에 따라 상이한 흐름 예상
 - 2월 미국 금리는 고물가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후퇴로 상승 후 소비 둔화 우려로 하락, 유로존은 ECB 인사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 제시*에도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되며 하락, 일본 금리는 BOJ의 금리인상 지속 기대로 상승
 - * 슈나벨 ECB 이사,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 등은 무역 불확실성과 물가 반등 가능성을 지적
 - 3월 미국 금리는 고물가 경계에 따른 보합세가 예상되며, 일본은 연속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, 유로존은 금리인하 사이클 지속 전망에 따라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
- (주가) 2월 미국과 일본 주가는 하락한 반면 유로존 주가는 상승, 3월 주요국 증시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장벽 확대 등 조정 요인 상존
 - 2월 미국 주가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경계하며 등락 후 고물가와 소비 둔화 우려로 하락, 유로존은 러·우 종전협정 개시 등으로 상승, 일본은 엔화 강세와 수출 증가세('24.10월 3.8% → 12월 2.8%) 둔화 등으로 하락
 - 3월 주요국 주가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트럼프發 관세장벽 확대 가능성, 미국 고물가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, BOJ의 금리인상 지속 등이 조정 요인

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

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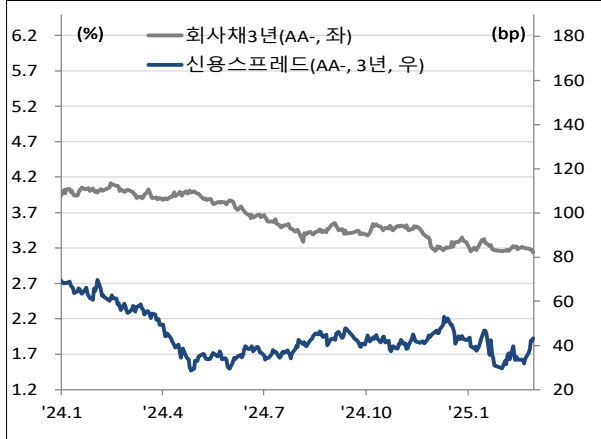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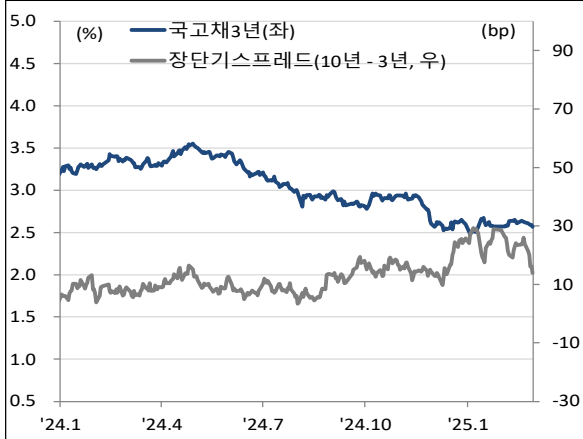


	'23년말	'24년말	'25.1월말	'25.2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3.897	4.533	4.522	4.431	△2.0%
독일채 10y	1.979	2.367	2.583	2.470	△4.4%
일본채 10y	0.623	1.101	1.212	1.430	+18.0%
다우존스	37,385.97	42,573.73	44,713.52	43,428.02	△2.9%
유로 Stoxx 50	4,521.47	4,869.28	5,230.66	5,474.85	+4.7%
Nikkei 225	33,169.05	39,894.54	39,405.35	38,776.94	△1.6%

자료 : Bloomberg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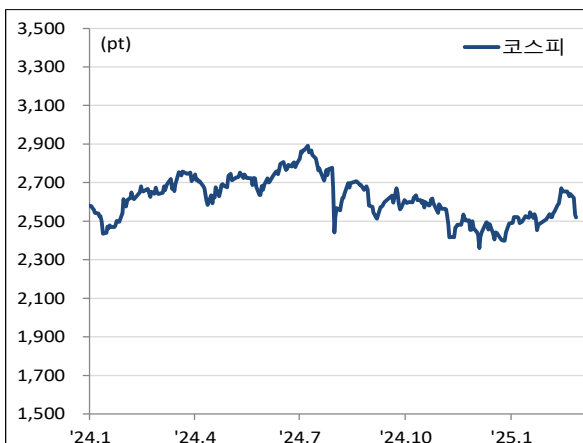
금 리 국고채3년 2.566% (4.5bp ↓), 신용스프레드 43.3bp (9.7bp ↑)



환 율 원/달러 1,463.4원 (19.9원 ↑), 엔/달러 149.31엔 (3.02엔 ↓)



주 가 코스피 2,519.88pt (2.75% ↓), 코스닥지수 737.35pt (2.51% ↓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↑, 하락↓

KDB리포트

KDB Report

제1064호

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37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